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생 바로알기

호남 문화

법과 질서



조만형

공무원 채용시험 개편 가이드라인은 없는가

가 마련되지 못하고 통치권력에 의해서 조조된 느낌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 첫째, 대학의 역차별 문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론의 핵심인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는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을 통해 실현된다고 한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treating like cases alike and unlike cases differently)는 것으로 각각의 능력과 가치에 비례하여 재산·명예·권력 등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면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험과목에 대한 단순한 지식습득만이 아니라 공무원 관련 학과 선택에서부터 수년간 관련 전공 공부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자세를 함양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둘째,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이나 행정업무 관련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약화될 수 있다. 갈수록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행정 관련과목을 필수에서 제외한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의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 수학, 과학 과목이 행정법이나 행정학 등의 행정 관련 과목과 동등한 비중으로 선택적인 취급을 할 만큼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셋째, 특정인이나 특정그룹을 향한 특혜를 주기 위해 임용방식과 절차를 바꾼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됨에 다름없다. 오히려 어떤 사람을 선발해야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걸맞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채용방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고등학교 교실현장의 파행마저 예견된다. 대학입시를 일차적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까지 하게 된다면, 교실현장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볼 보듯 뻔한 이치 아닐까. 대학입시시험과 공무원 채용시험은 확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유독 필자가 개입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의 경우에 이해관계인과의 논의나 소통 등을 통한 공감대 마련을 위한 어떠한 공청회나 여론수렴도 없이 갑자기 과목 변경 등이 예고된 것이다.

그렇다면, 백년대계를 할 만한 좋은 방안이 없을까? 우선, 공무원 시험과목을

변경하기보다는 더욱 많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적으로 절실히 요구된다. 공무원이 행정관련 과목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서비스 향유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의 장학기능 확대를 교육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실력이 있는데도 대학의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고졸공무원으로 진출하도록 노력하기보다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더욱더 넓혀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교육기본권 보장에도 충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개인의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형식적인 학력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제도로서의 학력사회는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인격적 완성을 위하여 부단히 배우고 고등교육 이상을 받는 것이 경시되고 비난받을 일은 결코 아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동신대교수·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민주당 호남 외면하고서 제1당 될 수 있나

4·11 총선 공천과 관련, 민주당통합당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이 심상치않다. 뼈를 깎는 개혁 공천보다는 정권을 다 잡은 듯한 오만함에다 투신 자살 사태까지 몰아간 국민 선거인단 경선으로 지역 민심은 흥흥하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호남지역 5~6곳에 대한 전략공천설이 꾸준히 흘러나오는 것도 호남사람들에겐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민주당이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공천개혁을 내세우면서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자기 부정'이며 '호남은 누구를 내세워도 당선될 것'이라는 발상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태도나 다를 바 없다.

구례·곡성·담양 선거구 폐지에 대해서도 존치를 수차례 약속했던 당 지도부가 지역민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 역시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한 공천 명단도 친노와 486세력 등이 대거 포진돼 '도로 열린우리당'이 아니냐는

기업 유인 역행하는 지방투자 보조금제

기업들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제 개선이 시급하다. 사업부지에 대한 관저당 잡히면서 1순위 체의 근저당 설정 등 까다로운 규정이 이전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부지 확보 및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규정상 '지자체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과 투자 확보를 위해 저당금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시행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문제의 조항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이도록 한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이 조항이 금융권을 통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대부분 이전부지를 매입, 공장을 세우면서 부지를 담보로 부족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급하다. 사업부지에 대한 관저당 잡히면서 1순위 담보가 아닌 2순위로 밀려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하고 있다.

때문에 신규 이전에 따른 투자금 확보가 쉽지 않아 착공을 미루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11개 기업의 부지 확보 및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규정상 '지자체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과 투자 확보를 위해 저당금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시행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문제의 조항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이도록 한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이 조항이 금융권을 통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대부분 이전부지를 매입,

종교칼럼



윤빈호

나, 너, 우리의 사순절(사순절)

되어진 브라질의 삼바 축제도 이런 카니발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톨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전 40일 동안 사순절로 지내는 것일까요? 성서는 여러 상징적인 숫자들을 사용하는데 40이라는 숫자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게' 창조된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썩어지자 이 세상을 정화할 필요성을 느끼시고 40일간 비를 내려 세상을 정화하신 '노아의 홍수' 사건과 관련있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단련의 기간인 4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기간과 맥을 같이합니다. 즉 40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사순절 40일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까? 사순절을 회개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현 위치를 하느님이라는 등대로 방향을 정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반성하고 하느님께 몸을 돌려 하느님께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신자들은 단식과 금육과 기도를 행합니다. 이 때문에 사순절은 회개의 시간이며서도 나를 다시 발견하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기도 은총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화와 회개의 시간이기도 동시에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되찾는 은총의 시간인 사순절, 이런 의미라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 사회도 이런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12년 임진년은 1592년 일제의 침략이 있었던 임진왜란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뒤흔든 1972년의 유신정변 40주년의 해입니다. 또한,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목전에 둔 우리들의 자세는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제의 침탈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부,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는 사람들, 국회의석수 늘리는 정당 이기주의자들 그리고 자기반성이 배제된 이를 바꾸고 4대강 보 공사 금가듯이 틀이 벌어진 MB정부와 연결고리를 끊어 차별화를 시도하는 현 여권, 그리고 갈수록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대기업들 등, 지난 시간이 너무 많이正道(正道)에서 벗어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순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반성하고 다시금 나라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올 한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거쳐 나, 너, 우리 모두가 향해 보아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 너, 우리 모두에게 사순절은 절제와 회개라는 고통의 기간이지만 또한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되찾는 은총의 시간이라 믿어 봅니다. 대한민국 힘입니다!

〈영암시호성당 주임(신부)〉

기고



노희용

광주FC의 K리그 정착과 승강제

오늘날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경기가 아닌 국민이 즐기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자인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축구를 활용한 도시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지난 2010년 12월에 광주FC를 창단하게 되었다.

광주FC는 우리 지역 꿈나무 선수들에게는 등용문의 역할을, 시민들에게는 함께 즐기며 환호하는 문화축제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자존심이다. 작년에 K리그에 첫 데뷔한 광주FC는

신생팀의 한계를 이겨내고 12만8000여 명의 관중 동원과 4명의 국가대표 선수 배출이라는 저력을 보여주었고, 축구 인제 육성 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후원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선정을 베풀며 '시민 속에서 함께 살아 숨 쉬는 시민구단'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한 신생구단 광주FC이지만, 시민들의 축구 사랑이라는 배경에 힘입어 화려하게 비상하며 시민들에게 무한한 자긍심과 내 고장 사랑, 넓게는 지역화합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겨 주었다. 광주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탄생한 시민구단이 벌써 시민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희망을 되돌려 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는 신생팀 광주FC에게 혹독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30여 년 동안 유지하던 플레이-오프제(Play-Off)제를 버리고, '승강제'를 도입하

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한 시적으로 스플릿 시스템(Split System)을 운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승강제란 쉽게 말해 16개 프로팀 가운데 2개 팀을 2부 리그로 강등시키고 나머지 14개 팀으로 1부 리그를 운영하는 것으로, 한국 프로축구 30년 역사의 변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8월까지 16개 팀이 각각 정규 리그 30경기를 치르고 그 성적에 따라 각 A·B리그 8개 팀씩 나눈 후, 각 리그별로 다시 14경기를 뒀 후 최종 하위 2개 팀을 2부 리그로 강등시키게 된다.

1부 리그에 정착하는가 아니면, 2부 리그로 강등되는가를 놓고 각 구단은 비상이 겹쳤다. 풍부한 자금력과 탄탄한 조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업구단에서는 명망 있는 지도자를 영입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하여 해외 전지훈련을 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고 재정이 열악한 광주FC는 사정은 다르다. 간판급 스타플레이어 하나 못붙인 클럽하우스, 훌륭한 연습구장, 탄탄한 자금력 등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신생팀이다. 그러나 경제적 배경보다 더욱 값진 146만 광주시민의 사랑을 입고 2012년 시즌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동계 훈련을 했고, 장신(長身)의 공격수들을 보완한 만큼 올해에도 큰 기쁨을 선물할 것이다.

올해는 흥분의 해라고 한다. '광주 시민의 구단' 광주FC가 3월4일 상주 상무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3월 11일 오후 3시에 월드컵경기장에서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경기를 펼친다. 여의주를 입에 물고 드넓은 하늘을 향해 풍찬하는 흥분처럼 광주 FC도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안고 승리하여, K리그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올 한해에는 어둠을 가나 누구를 만나나 광주FC 선수들의 통쾌한 승리에 온 도시가 떠들썩한 모습이 펼쳐질 것 기대한다.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카드사 지나친 할인 서비스 경쟁, 결국은 고객 피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요즘은 카드 회사들이 판촉을 위해 경쟁적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보면 "저렇게 해서 과연 이득이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왔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주요할인 서비스를 직접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할인 혜택이 산술적으로는 가능했는데 그것이 실제 실현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 전체를 할인서비스 받지 못하는 고객들의 주머

니에서 돈을 털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최근 모 은행에 갔다가 창구 직원이 권한 카드는 매달 10, 20, 30일에 주유할 경우 1ℓ 당 130원을 할인해준다는 내용이였다. 적잖은 할인 서비스였는데 다른 은행들도 카드 관측용으로 내세우는 할인금액이 1ℓ 당 보통 100원 인위적으로 할인서비스를 준다. 이것은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카드사의 적자이다.

그러나 이 카드의 주요할인 혜택에는 "3

개월 동안 30만 원어치 이상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즉 그만큼 소득이 높아 씀씀이가 큰 고객들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큰 폭의 주요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돈을 써야만 한다. 하지만, 돈이 넉넉히 있는 사람에게 3달간 3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국, 카드사의 이 같은 우량고객 마케팅의 폐해가 고스란히 서민고객들에게 돌아온다는 데 있다. 카드사가 우량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떠나는 분명한 적자는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카드사

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할인혜택에서 소외된 서민 고객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나친 할인서비스 경쟁은 결국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카드사에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카드업계는 과당경쟁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신용카드 대란을 겪었다.

앞으로 우량고객 유치에 혈안이 돼 제 살 깎아 먹기식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카드업계는 IMF때 카드 대란의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며, 지나친 과잉경쟁은 삼가야 할 것이다. ▲류용규·광주시 남구 서동

無等鼓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엘브리지 게리는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게 유리하도록 상원의원 선거구를 개설했다. 선거구 개정으로 공화당은 야당보다 적은 표를 얻고도 의석수는 29대 11로 압승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정당 보잘것없는 신생팀이다. 그러나 경제적 배경보다 더욱 값진 146만 광주시민의 사랑을 입고 2012년 시즌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동계 훈련을 했고, 장신(長身)의 공격수들을 보완한 만큼 올해에도 큰 기쁨을 선물할 것이다.

올해는 흥분의 해라고 한다. '광주 시민의 구단' 광주FC가 3월4일 상주 상무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3월 11일 오후 3시에 월드컵경기장에서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경기를 펼친다. 여의주를 입에 물고 드넓은 하늘을 향해 풍찬하는 흥분처럼 광주 FC도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안고 승리하여, K리그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올 한해에는 어둠을 가나 누구를 만나나 광주FC 선수들의 통쾌한 승리에 온 도시가 떠들썩한 모습이 펼쳐질 것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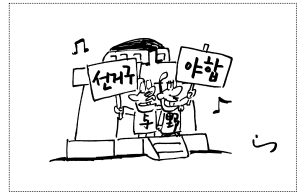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주변지역 선거구를 멋대로 쪼갬으로써 '게리맨더링'이란 자유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여춘야모'라는 정치 지형에 맞게 당시 선거구를 45개에서 17개로 줄여 승리를 인위적으로 만든 적이 있다. 지역구로 보면 충북 보은·옥천·영동 1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한다.

한국의 공화당을 만든 게리맨더링으로 불리고 있다.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에서는 구례·곡성·담양이 게리맨더링의 피해를 입게 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야합으로 담양은 영광·함평·장성에, 곡성은 순천에, 구례는 광양으로 갈라질기 한 하토야마 이치로가 자위대 참성을 위한 개헌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선거구를 마음대로 갈라놓았다. 하지만 '하토야마(하토야마의 게리맨더링)'라는 비난 여론에 밀려 2년 만에 소선거구 법안을 폐지했다.

아일랜드에서는 1973년 지방행정장관인 제임스 달리가 수도 더블린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慶完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